

여름방학 문화를 부탁해

방학맞이 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예비전문인교육·창작워크숍
'국악기 탐정단'·'얼쭉! 나는 소리꾼'



'예락' 팀이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소개하는 모습. (예락 제공)

연일 지속되는 장마로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곧이어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방학이 시작될 것이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 즐길 만한 문화교육, 체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ACC 중·고생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과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을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여름방학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은 예술을 경험하고 예비 문화예술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공연기획자', '건축가'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연기획, 건축, 무대예술 분야 등 전문가와 함께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공연기획자' 과정(23일~26일)은 나만의 공연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ACC 어린이극장을 방문해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 공연에 필요한 여러 요소 등을 알아보고 직접 공연을 관람한다.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건축가' 과정은 건축가 시선으로 도시와 공간을 읽고, 미래 ACC 모습을 설계해보는 시간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며 디자인을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작해본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8월 7~9일)도 예정돼 있다.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LED 무드등 만들기, LED 스탠드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다양하다. ACC 창·제작 스튜디오는 다양한 메이커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리 학생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매개로 문화 예술에 대한 꿈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기 탐정단'
광주시 서구가 오는 12월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 전시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국악기 탐정단'도 눈길을 끈다. 참가자들이 직접 '국악기 탐정'이 돼 미니 해금을 만들고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래, 예락,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등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놀이학습(국악기 탐정단의 단서 수집), 공연학습(전통악기, 소리 도난 사건), 체험학습(수상한 전통타악놀이)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ACC에서 여름방학에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장면. (ACC 제공)

이 밖에도 빛고을국악전수관에는 편경, 편종, 생황 등 생소한 국악기 약 60여 종이 전시돼 있어 아이들이 생소한 전통 악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참가 신청은 매일 넷째주 화요일마다 서구청 누리집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광산문화예술회관 '얼쭉! 나는 소리꾼'
판소리 이야기를 알아보고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해석하는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프로그램도 있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의 '얼쭉! 나는 어린이 소리꾼'이 그것.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명을 7월 말부터 모집한다.

1기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제비의 박에는 무엇이 나왔을까?'라는 주제로 진행 중이다. 흥부가 박대령 배우기를

비롯해 '제비의 왕국', '흥부놀부' 노래 배우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리가 만드는 흥부놀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뮤직비디오 만들기 시간도 있다. 뮤비 촬영과 어린이 음악극 '이상한 나라의 꼭두' 연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2기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1일부터 펼쳐지며 '토끼와 자라', '범 내려온다' 등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강의는 2015년 창단한 예술단체 '예락' 소속 강사들이 맡게 된다. 한예중 전통예술원을 졸업한 박은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 이수자다. 바오무용단 대표 박태영, 전남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 등을 역임한 조한도 학생들을 만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땀한땀' 손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수공예 한마당

광주디자인진흥원, 12~15일
'2024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의 멋과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다. 정교한 손기술로 구현한 수공예품이 시간이 흘러도 빛을 발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특히 예향인 남도는 예로부터 정교한 솜씨로 정평이 나 있었다.

개성과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수공예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024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핸드메이드페어)를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감대중견벤처센터(1층 전시장)에서 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핸드메이드페어는 전국에서 공예공방 200여 곳이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10개 증가한 최대 규모인 280개 부스로 구성됐으며 볼거리와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도자세트는 물론 창의적인 섬유공예, 은은한 맛이 깃든 천연염색, 아가지기한 약세리리 등 다채로운 수공예품이 관객을 맞는다.

특별관들도 이목을 끈다. 공예명품관 외에도 광



지난 2022년 열린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장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주 우수공예브랜드 '오렌지' 홍보관, 공예품대전 광주예전 수상작 전시관 등이 마련돼 있다. 지역 대학관은 젊은이들의 끼와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수공예품을 선보인다.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아시아 특별관에는 우리의 전통과 변별되는 아시아 각국의 수공예품이 전시된다.

관심을 끄는 특별관 가운데 하나는 '한지 특별관'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하는 이곳은 한지를 토대로 만든 다채로운 상품이 있어, 우리 전통의 우수성과 독특한 매력을 가늠할 수 있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수공예 체험, 플라워 공예, 은반지 만들기 등도 마련돼 있다.

송진희 원장은 "역대 최대로 진행되는 올해 핸드메이드페어는 다양한 공예품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주말을 끼고 펼쳐지는 만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방문해 수공예품이 발하는 특유의 감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오후 2시 개막식과 함께 오렌지 브랜드상품 인증패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여소리를 모티브로 한 '꽃신 신고 훨훨'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상여소리에 깃든 삶과 죽음의 의미

국립남도국악원·국립국악원 교류공연, 13일 진악당

경기, 서도, 남도 등 잊혀져가는 상여소리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국립국악원 교류공연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평안-꽃신 신고 훨훨'을 오는 13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장례 행렬을 따르는 상여꾼들이 망자를 기리며 부르던 '상여소리'를 통해 슬픔을 축제처럼 승화시키는 내용이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지역별로 다른 상여소리를 차례로 들려주며 음악적으로 다양한 정서를 전한다. 민요 잡가, 판소리, 무속음악 등 민속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처연하고 담담한 '서도 상여소리'로 막을 연다. 도서 지방의 상여소리는 지세가 험한 까닭

에 장례 행렬이 외나무다리, 개울 등을 건너가며 노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연유에서 아자자기한 성을 보다 무뚝뚝하고 단조로운 소리가 주를 이룬다.

이어 삶의 다양한 인연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경기 상여소리'를 만날 수 있다. 주로 '어호 어호 어그리남자 어호'와 같은 '남차류' 후렴구가 등장하는데 흥과 신명을 더한다. 끝으로 관객들은 '남도 상여소리'를 통해 인생에 남은 미련과 한을 씻어내는 시간을 만난다.

지역별 상여소리 외에도 제전과 상구소리, 산염불, 이별가, 진도다사대를 비롯해 진도 씻김굿, 지전춤, 판소리 '심청가' 중 '상여소리'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무료 공연. 국악원 홈페이지에 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기억되는 거기에 '빛나는 순간'

이준성 개인전, 15일까지 갤러리 관선재

누구에게나 빛나는 순간이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못내 아쉽고 아팠던 일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순간도 모두 삶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준성 작가가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동구 갤러리 관선재에서 진행 중인 전시는 작가가 상징하고 있는 빛나는 순간이 30여 작품으로 구현돼 있다.

'기억되는 거기에 그 순간이'라는 부제는 주제인 '빛나는 순간'과 자연스럽게 연동된다. 작가에게 기억되는 순간은 대부분 봄이라는 계절로 조절되곤 한다. 작품의 표제에 '봄', '상춘', '매화'라는 키워드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봄의 예감', '상춘-삼매경'의 작품들에선 이른 봄 화신을 전하는 가녀린 매화의 그윽한 향을 느낄 수 있다.

매화 핀 마을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이른 봄은 빛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상춘객을 심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가에게도 빛나는 한 때일 것이다.

수채화의 작품들은 밝고 경쾌하다. 한편으로 동양적 분위기와 기법 등이 배면에 녹아 있어 은은한 미를 발한다. 화사하지만 수수함이 깃든 그림은 오래 바라보아 진미를 느낄 수 있다. '산수마을 풍경'이 전하는 그윽함은 작가의 소묘력과 심상이 융합된 세계를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봄 외에도 설과 여름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있다. '여름의 들이 환기하는 녹색과 청색의 절묘한 경계, '늦은 오후의 장산도'가 발현하는 몽환적이면서도 은유적인 아우라는 잔잔한 여운과 만만찮은 내공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박광구 광주미술지회장은 "그의 작품 소재는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며 휴식처로 다



'봄의 예감'

가온다"며 "평온한 마을의 매화, 산수유, 목련, 꽃과 바다의 풍경은 작가가 맑은 물빛의 수채화로 원숙한 관록의 경지에 오른 것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한편 이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다. 인사아트센터 개인전을 비롯해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전 등 다수의 회원전, 협회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출신 단국대 김지원 교수, '한발국악전국대회' 대통령상

광주 출신의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김지원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살풀이춤으로 '제29회 한발국악전국대회'에서 명무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에는 명무부, 일반부 등에서 총 284명이 참가했으며 김 교수는 대통령상과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명무부 최우수상은 정선주, 명무 우수상은 신연희·서은선 등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양종승 박사(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는 "역대 한발국악전국대회 중에서도 참가자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며 "참가 접수를 제한할 정도로 많은 예술인들의 신청이 이어졌는데 수상의 영광을 거머쥔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무용의 길을 걷는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대회에 출전해, 크고 버거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한국춤 발전은 물론 앞으로는 전통 분야에서 제자를 육성해야겠다는

교육적 사명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힘 수건을 통해 내면의 부정적 마음을 해소하는 '살풀이'에는 우리 고유의 '풀이의 미학'이 깃들여 있다"며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춤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를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대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제8회 광주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 대한민국 한국무용대상 '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우리춤'(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이 있으며 '기억-이어짐', '홍 그리고 백' 등 작품을 출연해 왔다.

김 교수는 오는 11월 19일 연정국악당에서 '대통령상, 그 천의무봉을 보다'와 '한국의 국보공연전' 등을 펼칠 예정이기도 하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